

社說

새해에는 '행복지수'를 높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구랍 27일 발표한 SQ(자아행복지수) 테스트 결과 자신의 일상에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자체 개발한 SQ(자아행복지수)에 참여한 10대~60대 국민 5,011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인 85%는 열심히 살고 있으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행복감 충족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자칫 우울증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받은 응답자도 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중을 떠난 종교는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 등을 두드려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다. 그래서 중

교계, 아니 우리 한국 불교계의 어깨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다. 우선 새해 불교계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건강한 포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다면 종교를 초월해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이 언제든지 체험하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불교 멘토들을 키우는 것도 한국 불교계의 또다른 신년 과제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이 불교 멘토들의 감호법이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찾고 위안이 된다면 이 또한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

자 이제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우리 불교계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모두 행복하길 새해 벽두에 간절히 발원해 본다.

마음산업 대중화는 포교 지름길

지난해 한국 사회에 불었던 '힐링 열풍'은 각박한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힐링 열풍'에 대한 관심은 마음 산업의 수 요로 이어졌다. 특히 뇌과학과 마음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전문 서적부터 멘토 스님들의 치유 에세이까지 마음치유에 대한 출판물은 특수를 누렸다.

외국인 명상 전문가들도 지난해 하반기 대거 방한했고, 올해에도 탄탄한 스님 등이 한국을 찾는다. 이런 현상은 불교계 내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계사와 통도사에는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설립됐고,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실전 호흡수행' 등 마음 관련 강좌들이 불교대학 내 신설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마음관련 산업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나아갈 길은 가히 무궁무진하다. 불교는 마음 수행의 증가이자 다양한 수행법과 역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의 마음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 사이 서구 마음산업과는 격차가 벌어져 비싼 돈을 주고 억수입하게 됐고, 유사 명상 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참선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단월드와 경우 1985년 전신인 단학선원을 개원한 이래 1991년 미국에 진출했고 현재는 200만 명의 수련자를 보유하고 있다.

불교가 마음수행, 명상의 '종가(宗家)'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한국불교도 유구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현대화·대중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불교적 마음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명 '마음산업'은 시대적 트렌드이다. 더 이상 서구 프로그램을 억수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만의 마음사업을 개발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가장 행복한 때



윤후형 소설가, 국민대 문정대학원 겸임교수

끝이곧대로의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울음과 그림을 살피기 위하여

끝이곧대로의 사랑의 힘님께 길을 비켜라.
헌날을 데리고 서산을 넘어가 멀리 멀리 사라져가거라.
있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 하는 사랑을 위하여.

이제 나는 나이 들어서 '있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 하는' 꾸밈없는 인생 앞에서 있음을 노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기다려온 때가 바로 지금임을 확인할 차례인 것이다. 젊어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승리라고도 여긴다.

"가장 행복한 때는 지금입니다."
나는 기쁘게 말했다. 왜 그런지는 앞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렇게 기다려온 때가 마침내 다가왔고, 바라던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20대부터의 숙제를 푸는 작업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하여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막상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나니 새삼스러운 감격이 밀려왔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도 결국 늙는다고 가르친다. 이 평범한 가르침을 위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상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나니 새삼스러운 감격이 밀려왔다.

이렇게 나는 새날을 맞이한다. 굳이 1년 단위로 시간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야달력의 종말론도 별일 없이 지나갔고, 무엇보다 뜨거웠던 대선도 결말이 난 다음의 지금은 예년과는 다른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믿는다.

새롭게 나 자신을 가다듬고, 나라 역시 새로운 역사 앞에 '끝이곧대로의 사랑의 힘'을 맞이하는 새해가 오고 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다. 언제까지 내게 이 행복한 나날이 허락될지 알 수는 없어도, 이 고마운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나는 증명하려 한다.

수 없는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을 보내며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혹시나 세월에 풍화되어 사라지면 어쩌나, 나이들이란 모든 것을 흐지부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투로 흐리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기만을 바랐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말했다시피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루 하루 끼니를 이어가기에도 허덕이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지상명제였다. 그동안 안타깝게 이성을 버린 동료도 몇이 되었다. 그런 한 해 한 해를 살아남긴 것이 기적 같은 때도 있었다. 나는 한 해를 보내는 시를 적는다.

지나온 한 해가 겨울 속에 묻혀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 사랑을 기대한다.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끝이곧대로 보여주는 힘인 사랑. 겨울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그때마다 더 깊게 파이고 새로운 날 숨가쁘게 기다리게 했으니 이제 기쁨과 슬픔 함께 버무려 겨울 속 침묵의 창고에 간직하련다. 가거라, 모든 망령이여 먼 뒷날 비록 다시 모습을 드러내 겨울 속에서 절규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한 해를 보내며 영종도의 도서관이 마련한 송년행사에 가서 시와 동화를 읽었다. 지난 한 해는 시집 두 권과 소설집을 내고 첫 그림 전시회까지 열었으니, 생애에서도 바쁘게 보낸 날들로 기록되었고, 그 마무리 행사가 되는 셈이었다. 흔히 그렇듯이 뒷부분에 질문 시간이 되자 누군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가장 행복을 느낀 때가 언제인가요?"

돌아켜보면 지난 인생에서 실로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갖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특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란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이다. 식민의 골짜기 끝나고 전정이 닳았으며 혁명이 있었다. 보릿고개 같은 이상한 날들이 있었던 어려운 나날, 실낱같은 목숨을 하루 하루 이어온 세상살이었다.

가장 행복을 느낀 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울컥 하고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자자분한 많은 기쁨들이 있었다. 그만큼의 슬픔들도 있었다. 용기의 나날, 좌절의 나날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이렇게 나이도 들게 되었다. '가장'이라는 말이 지난 세월을 통틀어 아우르다 할 때, 실로 어렵게 어렵게 오늘까지 지켜온 삶이 큰 느낌으로 고맷게 밀려오는 한가운데 나는 서 있었다. 그와 함께 나는 20대의 젊은 어느 날, 나 스스로에게 던졌던 숙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늙어서도 젊어 있는 삶.
나이 들어서도 젊은날처럼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각오였다.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일찌감치 현역을 그만두는 풍조가 두드러진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글을 쓰는 작가들이 오래 오래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젊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한 외국 작가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글을 썼다고 알려져 있었다. 조그만 성공에 만족하고 글을 멀리하는 작가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어서 빨리 나이 먹어 늙기를 바랐다. 그래야 나는 '늙어서도 젊어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천하는 나를 보여줄 것이었다. 나이 먹지 않고서는 증명할

윤후형 소설가는 ... 1946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6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197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저서로 시집 《영국》 《홀로 상처 위에 등불을 켜다》 《쇠물담의 책》, 소설집 《둔황의 사령》 《협계열차》 《여우 사냥》 《가장 멀리 있는 나》(모든 별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삼국유사 읽는 호텔》 《새의 말을 듣다》 《꽃의 말을 듣다》, 산문집 《꽃》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러 눈물을 다오 등 다수

새 아침을 열며

터

손현숙

- 침묵할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 토함산 동쪽 능선이 끝나는 기슭
- 절은 없고 터만 남아 잠초 우거졌다
- 기억의 뼈를 모아 쌓은 탑
- 공손하게 합장한 듯
- 천수다라니를 득경하고 있다
- 없는 사람, 없는 종소리,
- 없는 목어를 깨운다
- 햇살이 탑 주위를 돌고 돌아
- 도는 시간에
- 누구들 속수무책 아니라
- 천년을 흘러도 흐르지 못한 것들
- 어떤 손길이 밤낮 정을 쏘아
- 몸돌에 새긴 시방,
- 시방을 살피는 눈 부릅뜬 인왕상
- 보이지 않는 것이
- 보이는 것을 지킨다

손현숙 시인은... 199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너를 흠친다》, 산문집 《시인박물관》 등

佛紀 2557年 癸巳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자지 않는 사람이 되라.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회주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公盆 大韓佛敎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 중)

회주 화담
주지 화응
부주지 대휴

신도일동

財團 華嚴僧伽獎學財團
公盆 大韓佛敎華嚴宗獎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주지 일관
총무 법중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불암산로 190
TEL 031)527-8345
www.bulamsa.comm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도가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이상우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